

# 전국 1호 '마을자치연금' 순항

### 익산시 현판식 개최...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시작 알려

전국 최초 농촌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 익산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추진할 제1호 마을이 현판식을 열고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1호 마을에 이은 후속 마을 발굴과 안정적 마을자치연금 확보 방안 등을 담아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6일 제1호 사업체법인인 성당포구마을에서 공공기관, 기업, 마을공동체와 함께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정현을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민 사회적가치추진단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광희도 경영지원실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병은 총괄본부장, 새만금개발공사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상생기금본부장, 한솔테크닉스 박명철 상무, 우리은행 운영근영업본부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하며 제1호 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다.

현판식 이후 착공할 신재생에너지 공사 기간은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성당포구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전국 농촌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표준 모델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제2, 3호 익산형 연금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형 일자리, 이제는 실행이다!

### 실무추진위원회 갖고 사업 추진의지 다져

군산시는 26일 청년뜰에서 지역 양대 노동계, 참여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상생협약회 합동회의에서 논의했던 2021년 추진 로드맵을 바탕으로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의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안전별 세부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중전·중소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밸류체인 R&D협력사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사업 및 전기차 스케이트보드 개발 및 공동 활용

사업과 올해 시와 참여기업 5개 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부 추진 그린 뉴딜 공모사업인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군산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정 이후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우선 과제로 지역 공동교섭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손꼽았다.

이는 종래의 노사, 원-하청 관계의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교섭을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참여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 사업계획도 공유하며 사업추진에 내실을 다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상생기금 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유관기관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기업의 투자 진척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창호 경제행정혁신국장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 2년이 참여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생과 가치연계의 준비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 만큼 상생협약 체계의 초심(初心)으로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상 착공, 생산설비 구축, 인력 채용 등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과 함께 지역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업체와 지역생산품 이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농협, 소형농기계 보조 등 환원사업 시작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은 최근 소형농기계(비료살포기) 보조 사업 및 무상비료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번기의 시작을 알렸다.

익산농협은 신규조합원을 가입하면 5년이 지나야 각종 환원사업(무상비료, 무상식염, 장학금) 대상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농촌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익산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매년 무상비료 최대 18포, 4종복비 3명, 무상식염(20kg/포) 3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조합원에게 필지 당 NK비료를 3포씩 공급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37억 8천만 원을 책정하여 조합원의

등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김병욱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대면객이 감소하고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예수금 이탈 등 열악한 상황이지만 조합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군산시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총 5명 위원 위촉장 수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최근 시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김경구의원(6선, 가선거구)을 선임했으며, 김영현(공인회계사무소), 심상근(세무회계사무소), 김재민(세무회계사무소), 전순미(정옥산면장) 등 총 5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또한 결산검사를 통해 올 한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는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히 따져 나갈 방침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재정·회계분야에서 전문성 및 역량을 고루 갖춘 위원들이 선임되어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집행기관의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우리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경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힘을 합쳐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감사는 물론 군산시가 건전한 재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대폭 지원

### 1인당 4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차등 지급

익산시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으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촘촘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대상을 정부 기준인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대폭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1인당 4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익산형 긴급지원 신청은 위기 상황

에 놓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통리장·이웃 주민 등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살고 후회받지 않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3개월 동안 524명에 1억 5천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 바 있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은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수 개월간 일을 못해 월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체납돼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생계비를 지원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장정남)가 익산시여성회관에서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구축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협의체에는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원광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시청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전북노사발전재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일자리 관련 대표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대표들은 회의를 통해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보고와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사업 소개를 통해 기관별로 함께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새일센터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일자리 발굴, 취업 정보 공유, 협력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서해 수호의날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전달

군산시는 제6회 서해수호의날(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아 올해의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첫 대상으로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고(故)문광욱 일병 부모 자택을 방문,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했다.

이번 행사는 김일준 군산시장, 최정길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명패를 부착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고(故)문광욱 일병 부 모영조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집에 명패까지 직접 방문해서 달아주시니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일준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